<6월13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나를 ..."

21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22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3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2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25 그러나 그 여자는 나아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2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27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28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마태복음서 15:21~28)**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귀신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냉담하게 반응하시며 거절하십니다. 끝까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가나안 여인의 진지함과 깊은 마음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딸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그럴까요?

공관복음서인 마가복음서 7 장에는 가나안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지리적 명칭으로는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인'(새번역)입니다. 당시는 그 지역은 알렉산더에 의해 그리스의 점령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으로 불렸고, 실제로 이 여인은 본문에 등장하듯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을 '개'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반면(숨겨진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의 큰 주제요, 내용에 깔린 핵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과 예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고 냉담한 거절부분에서 '메시아직(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9:1~7 에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이 다윗의 왕권을 잇는 것이며, 그 왕권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일부만 보시면) 6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7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가 '다윗의 왕좌와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다윗의 통치권으로 상징된 '영원한 통치자의 왕권'을, 그가 영원히 이룰 '공평과 정의—정의와 공의'라고 합니다. 포로된 자를 놓아주며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긍휼과 자비라고 합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보냄 받을 메시아(그리스도)에게 준 사역'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 한 여인에게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다면,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갈 것을 알지 못했더냐?'하고 냉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대답은 '다윗의 왕좌와 왕국 위에 군림하실 분(그리스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십니다. 그 분은 모든 족속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사하실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선포요, 그리스도를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통치자 앞에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을 얻어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를 개로 취급받는 것을 당연시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와 엎드린 이 여인'과 방불하게 '그 옆에 마땅히 엎드렸어야 할 유대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들이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율법을 소유한 자들로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습니다. 백성이면, 자녀이면, 제사장이라면 그 아버지 하나님, 왕권 앞에, 거룩한 신 앞에 더욱 더 나와 엎드려 순종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인(종)이면, 주인이 기르는 개나 소(가축)라면, 주인이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기에 급급할 것인데, 주인의 뜻을 배우거나 순종할 위치나 수준도 안 될텐데, 자녀라면 백성이라면 다르지요! 유대인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여인이 이해한 것이 이런 성경의 내용이 아닐까요?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84:10~12, 10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 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11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 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 주십니다. 12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레위지파에 속하여 성전 일을 감당했던 이들입니다. 성전의 일에서 조금 밀려난,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보면, '악인의 집에서 왕 노릇하지 않겠다! 하나님 집의 개가 오히려 낫다!'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부분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심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 때문에 신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루 되십시오.